

다시 만난 노조간부 웅아띠넴의 서글픈 시

전제성*

2003년 1월, 현지조사를 했던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수라바야(Surabaya)를 한해 반 만에 다시 방문했다. 수라바야에 들어가자마자 접한 소식은 내가 사례로 연구했던 리복(Reebok) 아동용 신발 제조업체 빅토리(PT. Victory Long Age)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빅토리 공장의 노조는 학위논문의 주요사례 중에 하나였고 상당히 치밀하고 알뜰한 조직가들이 포진된 노조였기 때문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빅토리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했던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LBHS: Lembaga Bantuan Hukum Surabaya)의 노동변호사 수다르토(Sudarto)에게 부탁하여 실직한 노조간부들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부위원장 웅아띠넴(Ngatinem)의 소재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웅아띠넴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함께 빅토리사가 속한 판데스(Tandes) 공단의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웅아띠넴은 노조간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질바브(jilbab: 이슬람여성들이 착용하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두건)를 착용해서 인상적이었다. 스물일곱살의 웅아띠넴은 1998년 5월 파업을

*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시작으로 아홉명의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노조를 건설했으며 브레인인 로이카(Roikah Rusbia)와 함께 노조의 양대 기둥을 이루었던 조직가중의 조직가였다. 기억력이 좋고 단순하면서도 차분한 말씨를 지녀서 내가 노조활동을 파악하고 기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시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시를 쓰고 노조 행사나 노동자연대집회에서 낭송하곤 했는데, 그녀의 낭독은 처절하고 장엄하였다. 이런 탁월한 조직가가 야채장사를 하고 있다니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토요일 아침에 수다르토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웅아띠넴의 숙소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마침 집에 있었던 웅아띠넴은 깜짝 놀라며 우리를 반겼다. 그녀는 우리를 방에 들게 한 뒤에 황급히 나가더니 콜라와 과자를 사들고 돌아왔다. 손님이 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답례로 주인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이 곳의 관례였다. 웅아띠넴은 “정말 좁고 발 펴기 힘든”(sunggu sempit susah selonjol) 단칸방에서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숙소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화장실과 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웅아띠넴의 방문에는 폭력적인 종족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의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벽에는 노조 전국대회와 미국노조국제연대국(ACILS)의 단체협상 교육에 참가했을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있었다. “TSK Victory”라고 노조이름이 쓰여진 커다란 철제 서류함이 방의 제일 안쪽 침대 옆에 놓여 있고 그 속에 노조 서류들과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사라진 노조의 사무실이 웅아띠넴의 방으로 이전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조직가로서의 자부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웅아띠넴이 들려준 폐업의 전모는 이러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2002년 9월 초였고 해고금 협상은 그달 말에 끝났다. 회사가 폐업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신발산업은 다 망했다”(Industri sepatu Indonesia hancur)는 널리 유포된 문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빅토리는 대만인과 인도네시아화인 간의 합작기업이었는데,

인도네시아화인 투자가가 대만인 파트너에게 더 많은 이익배당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작을 그만 두기로 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리복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리복 측은 빅토리가 아동용 신발을 계속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주문량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회사를 주로 경영했던 대만인 부사장 리(Lee)는 근처에 100명 정도를 직원으로 둔 신발밀창(outsole) 제조업체를 차렸다. 심상치 않은 기류를 미리 감지했기 때문이었을까? 리 부사장이 자기 사업을 따로 시작한 시점은 회사가 폐업하기 일년 전이었다. 리 부사장은 폐업 2주전에 노조 측에 폐업계획을 통보하였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부에서 정한 해고금을 지불하겠다는 회사 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였고 협상과정에서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과 상의하지 않았다. 인접한 신발공장 신데렐라사 폐업 때 노조가 해고금 협상을 1년씩이나 끌면서 고생했던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협상을 조속히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독립기념일과 노조설립일이 모두 8월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빅토리아에서는 8월마다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성대한 잔치를 개최해왔고 폐업방침이 통보된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잔치는 마지막 잔치였기 때문에 노조는 그동안 저축했던 노조비의 거의 전부를 지출하였다. 수라바야인들이 동남아 최대의 사창가라고 부르는 돌리(Dolly)의 카페에서 육감적인 당dut(dangdut) 여가수들을 초청하였고 경품도 어느 때보다도 푸짐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바 전통의 의례복장을 차려입은 노조간부들이 무대위로 올라갔다. 모두 손을 잡고 일렬로 늘어선 간부들은 노조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 간부들을 성원해준 노조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부족함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 파티는 회사의 장례식인 동시에 노조의 장례식이었다.

노조간부들은 해고금 협상을 다 끝내고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라바야 동물원에서 고별모임을 가졌다. 고별모임의 내용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다. 놀고먹는 노조지역지부의 간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던 노조위원장 아산(Ahsan)은 소망대로 의류신발가죽노조(TSK: Tekstil Sandang Kulit) 수라바야 지부의 부위원장으로 발탁되어 네명의 상근조직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부사장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썼고 노조 일에 게을렀던 간부였기 때문에 구태여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탁월했던 간부들은 지역지부의 조직가로 채용될 수 없었고 새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낙향해야 했다.

노동자리더십의 전형이었던 총무 로이카(Roikah)는 부업이던 화장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한다. 그녀는 애기엄마로서 집안일에 더 신경 쓰라는 신랑의 반대를 무릅쓰고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끝까지 노조를 이끌었던 조직가였다.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여성부장 올리(Sri Yuliati)는 빵가게에 취직했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지겨워서 2주만에 그만 두었다. 미신을 밝던 숙련노동자로서 긍지를 갖고 있던 터라 다시 신발공장에 들어갔지만 노조간부였던게 탄로나서 3일만에 해고당했다. 지금은 거주지에 구멍가게를 열었다고 한다. 부위원장 마리아(Maria)는 전화방(Wartel) 지킴이가 되었고 회계 마리아마(Mariamah)는 집에서 애기 보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 밖의 간부들은 수라바야를 떠났다. 노조 집회마다 최전방에서 대중들을 이끌었고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유운(Yuyun Ekowati)과 빈띠(Binti Muarofah)는 각각 중부자바 끌라텐(Kelaten)과 동부자바 바뉴왕이(Banyuwangi)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체육부장 누르홀리스(Noercholis)도 동부자바의 고향 점버르(Jember)로 돌아갔고 사회부장 수마르시니(Sumarsini)는 남편을 따라 발리(Bali)로 일자

리를 찾아 떠났다. 남자간부로서 남녀간부들 사이를 중재했던 부위
원장 호이룰(Choirul)은 고향 마디운(Madiun)으로 돌아가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로 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웡아띠넴 부부와 점
심을 함께 하면서 다음에 내가 다시 왔을 때 간부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빅토리아는 폐업 후에 나무와 양파를 보관하는 창고로 변했다.
돌아오는 길에 회사 앞을 지나게 해달라고 수다르또에게 부탁했다.
인적 없이 쓸쓸하게 닫힌 정문 너머로 회교사원의 지붕이 보였다.
회사 중앙에 세워진 회교사원은 근 10년에 걸친 빅토리아 노동자들
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수하르토 시대에는 노동조합, 최저임금, 출
산휴가, 생리휴가, 사회보장보험, 충분한 화장실이 보장되지 않던
상황에서 기도시간이 인정될 리 만무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빅
토리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했고 군부의 탄압을 받으면
서도 수차례의 파업시위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민주화 이후 노조가
건설되자 회사 측은 유화조치의 일환으로 회교사원을 건립해 주었
던 것이다. 노조간부들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알라딘이 나타나 텅
빈 회교사원을 들고 갈지 모른다는 농담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아
마 자신들의 고단한 투쟁의 업적이 조롱받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
을 것이다.

빅토리아 노조는 수라바야의 2001년 메이데이 기념식에 2백여
명의 노조원을 파견하여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때 웡
아띠넴은 천여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로이카와 함께 쓴 “잊혀진 친
구”라는 자작시를 낭독한 적이 있다. 웡아띠넴이 내게 선물로 주어
준 이 시에는 착취당하고 멸시받고 마모되다가 결국 버려지는 인도
네시아 ‘산업전사들’의 절망이 담겨져 있다.

잊혀진 친구

내가 안지는 오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 이미 너무 오래되어,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 나, 내 친한 친구의 이름 ...
누구였니 ... 네 친구의 이름은?

나...
나의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기에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기계의 볼트 같은 존재.
힘이 있을 때는 사용되다가
녹슬면 버려지는 것.
소처럼 지치면 채찍질 당하고
힘이 다하면 도살되어 갈기갈기 찢기는 존재.

문제는 심장 박동만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하찮은 염소처럼 불행한 운명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염소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닙니다.
나는 주인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필요하다면 검붉은 내 피를
음료수로 마시도록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정상을 향한
혹은 승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신성한 민족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 일, 일.

월급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삶은 물질적 보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되는 것,
비록 영혼이 신음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투쟁이 진정 나의 권리라면
그들이 왜 그 피를 마실까?
매 시간 시간, 매일 매일,
해가 다 진 뒤에도.

그렇다면...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그렇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멀리 내다보는 일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하, 하... 내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래도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월급은 정말 아주 적지만요,
그 도덕적 가치는 한정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의 힘과 땀과 생각과 마음을 바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조차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